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선 제목: 선을 즐기는 사람들 성경: 시편 1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1-6)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선인은 선을 즐기는 사람들, 악인은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선인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자들로, 회개가 필요하다.

악인이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위선자들로 위기가 닥치면 재빨리 선한 옷을 벗어버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들.

진정한 선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즐기는 사람들.

-선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자들과 부른다. 율법주의자들은 선을 악용하지 즐기지 않는다.

-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도 있다.

-물론 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들도 있다. 독재자들.

-또 선하기는 해도 순진하다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악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 해악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른채 악에 물들어가는 자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저주가 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분류한다.

선을 즐기는 자들이란 누구인가?

-이들은 먼저 모든 악함이 무엇인지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가 아닌)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다.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준다.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므로 진리의 말씀이며, 이 율법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악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지요, 저주요, 불행일 뿐이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통법규를 배우는게 아니다.)

-악한 것을 즐기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고, 더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다.

-선을 즐기는 사람들은 악의 즐거움이 거짓이며, 유혹이며, 속임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 깨달아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1:1)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마귀는 무능력자나 멍청이가 아니다. 사람을 유혹할 만큼 꾀가 많다.

-세상에는 그런 꾀수를 따르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런 꾀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말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고, 그들의 자리란, 그런 악한 말

들을 쏟아내는 자리를 뜻하고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그 말에 물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 죄에 오염 되어서 모든 것이 복되지 못한다. 아내가 있어도 복스럽게 여기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있어도 복되지 못하고, 재물이 있어도 오히려 악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나님 곁을 뜻함. 구체적으로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성도들의 교제로 인해서 건강한 교인이 됨.

-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열매를 맺을 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 범사에 형통하게 됨;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마다 도와 주시기 때문이다. 선한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소문에 이리 저리 흔들리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게 된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심판을 견디지 못함.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함. 그러나 선한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일어남.
- 비록 그가 실수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가 넘어졌어도 짓밟지 말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선한 사람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알아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 하신다. 하나님이 새 힘과 소망을 주신다.
- 인생은 좌충우돌. 선악의 전쟁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기드온의 승리 말씀: 사사기 7장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허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다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나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리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리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였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뽕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뽕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렐과 스엍을 사로잡아 오렐은 오렐 바위에서 죽이고 스엍은 스엍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렐과 스엍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삿7:1-25)